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집·대담한 性

성교육, 보다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올해 16세인 고복차림의 남학생이 진료실로 들어선 뒤 잠시 머뭇거리고 앉은 소영석 때 요도가 따끔거리고 농이 나와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말한다. 진료실 밖에는 여자 친구 목소리가 들렸고 그 친구와 성관계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전혀 부끄럼 없이 하는 얘기에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병이 왜 생기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다.

성교육이란 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성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생물학적 성지식 뿐 아니라 이성에 대한 태도와 행위, 남녀관계 및 인간관계 등의 의식도 가르치는 종합적인 인성 교육이다.

성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며 근대화 이전에는 성교육이 가장장적인 면이 강하고, 유교사상에 입각해 성에 대해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다시피 하였다. 근대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은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을 하면서 제기되어졌고 1983년부터 공식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었다.

최근에는 성교육제 등 급속적 내용이나 임신, 월경 같은 생리현상만을 가르치는 성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 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성문제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이미 아이들은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접하고 있으며 신체 성장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내용도 이에 대응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의 내용은 자위행위, 성적인장, 음란물, 이성교제, 성폭행 등 성문화와 성의 개념, 애정관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실질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원치 않는 임신, 성병, 성폭력 등의 위험한 성으로부터 예방과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올바른 성지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교육이라면 흔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성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부모나 자녀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교육이란 흔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성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부모나 자녀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증가에 따른 성적 흥미의 감소나 조루,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장애로 부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끄끙거리거나 노인들의 성병이 사회문제화되기도 하는 상황은 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체변화와 시대에 따른 성의식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성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므로 부모의 건전하고 밝은 성관념이 중요하며 이는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부모가 가장 훌륭한 성교육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은 더 이상 감춰야 하는 부끄러운 욕망이 아니며 금기시하거나 억압해야 하는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성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징이 있다. 왜곡되고 과장된 성의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지식을 주기 위한 주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윤리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명비뇨기과원장>

리빙 센스

눈썹정리 하기

◇숱감명이 눈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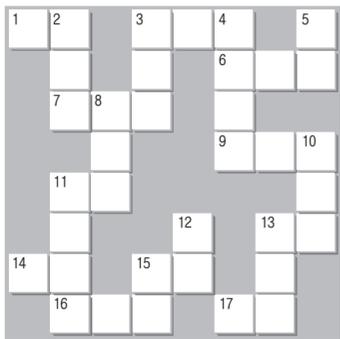
술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눈썹 라인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다.

- 1. 손가락으로 눈썹 결을 정리한 다음 눈썹 라인 밖으로 빼져나온 부분을 눈썹 가위를 이용해 정리한다. 손가락으로 눈썹을 살짝 누른 채 자르면 쉽다.
2. 눈썹 가위를 부분부분 잘라내면서 술을 정리한다. 이때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자르면 눈썹이 뭉툭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눈썹 빛을 대고 자르면 깔끔하게 자를 수 있다.
3. 아이브로 색도를 브러시에 묻혀 눈썹 산부터 끝으로 빼주면서 선을 그린다. 끝이 가늘고 사선으로 된 브러시가 사용하기 간편하다.
4. 투명 마스카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결을 따라 정리해준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 11월 18일 己丑)

12生肖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Each sign includes a brief horoscope and lucky/unlucky numbers.

함께 풀어봅시다 < 331 >



<함께 풀어봅시다 330회 정답>

- ▲지난주 정답자: 박수완·순천시 서문로, 김인순·신안군 압해면 신장 2구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가로풀이

1.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봄. 또는 앞으로의 일 등이 잘되어 갈 것으로 여김.
2.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려는 열의.
3.사장이나 기관장 등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속매 일 스케줄 등을 보고하고 기밀문서나 사무를 맡아보는 직위의 사람이 있는 방.
4.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를 이르는 외래어.
6.시장, 가게 등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음. 유럽 상인들은 휴가 기간에 일제히 ~를 한다.
7.호랑이의 털가죽을 이르는 말.
8.클이나 그림 등을 신문이나 잡지에 실음.
9.손수 쓴 글씨. 권 도원수는 글씨 ~로 당장을 써서 파발 편에 보냈다.
10.일정한 친척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

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권리. 17.토의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사실, 또는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의 ~이 국무 회의에 상정됐다.

↓ 세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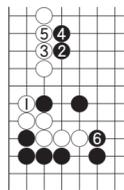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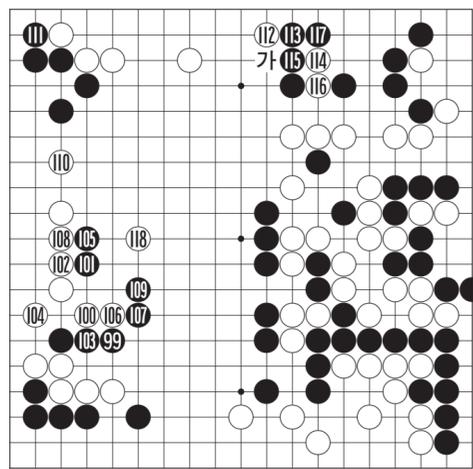
1.사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등의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이번 달에는 ~가 너무 많이 나왔다.
2.학교에서 교사가 교재를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곳.
3.월가가 왕성하고 열렬한 의기를 가진 사나이로 이르는 말.
4.같은 종류의 사물 가운데 큰 규격이나 규모. ~ 트럭.
5.소형.
6.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읊은 시.
7.인상을 기념하기 위해 수여하는 값.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가 수여된다.
8.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재상. 흔히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를 가리킴.
9.윗사람의 일을 도우거나 모심. 부장은 능력 있는 과장의 ~을 받아 추진했다.
10.좋은 조건.
11.약조건.
12.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해 갖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영통한 들여다 보기

페어부 결승 6보(99~118)

白 함영우·송예솔 黑 오창석·이수빈 (전라남도) (경기도)



<참고도>

백 100으로 응수한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고분고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흑 2, 4를 선수하고 6으로 두게 되는데 전남 팀은 이 그림을 싫어한 것으로 보인다.

백 100으로 두면 집으로는 다소 손대다. 그러나 이 그림은 모양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운영이 서로가 어렵게 된다. 백 112는 좋은 착상인데 송예솔양이 백 114로 들여다 본 수가 영통했다. 이 수로는 그냥 '가'를 선수할 자리였다. 흑 117까지 백이 손해를 보고 있다.

백 100으로 응수한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고분고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흑 2, 4를 선수하고 6으로 두게 되는데 전남 팀은 이 그림을 싫어한 것으로 보인다. 백 100으로 두면 집으로는 다소 손대다. 그러나 이 그림은 모양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운영이 서로가 어렵게 된다. 백 112는 좋은 착상인데 송예솔양이 백 114로 들여다 본 수가 영통했다. 이 수로는 그냥 '가'를 선수할 자리였다. 흑 117까지 백이 손해를 보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210>

When are we leaving for New York?

언제 뉴욕으로 떠날 거죠?

- A: When are we leaving for New York?
B: As soon as I finish my dinner.
A: When do you think that will be?
B: Probably no more than 20 minutes.

- A: 언제 뉴욕으로 떠날 거죠?
B: 저녁 식사를 마치면 바로 갈 거예요.
A: 그때가 언제죠?
B: 아마 20분 정도면 되겠죠.

- * leave for ~ = ~으로 향하여 떠나다
* no more than ~ = 단지, 겨우(only)

- * 그 사람들은 언제 자동차를 살까요?
= When are they going to buy a car?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210>

ky(くうきよめない)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

- A: なんだよあんたkyかよ。
さっきはそんなふんいきじゃなかっただろう!
B: ええすまん。で、kyってなんだか?
A: ...やっぱりkyだなあ。全然混ぜないね。

- A: 뭐야, 너 ky냐? 아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
B: 아, 미안 그런데 ky가 뭐야?
A: ...역시 ky구나. 전혀 대화가 안 되는구만.

k-くうき(kuuki) 공기, 분위기
y-よめない(yomenai) 읽지 못하다, 이해 못하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단어를 알파벳 약어로 줄여서 말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 중 ky는 분위기를 읽지 못한다고 하여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87>

你们班谁跑得快?

당신들 반에서 누가 제일 빨리 달릴까?

- A: 你们班谁跑得快?
Nimen ban shui pao de kuai
나들반에서 누가 빨리 달릴까?

- B: 他跑得快。
ta pao de kuai
그가 빨리 달릴까?

- A: 谁跳得高?
shui tiao de gao
누가 뛰어오를까?

- B: 金老师跳得高。
jin laoshi tiao de gao
정선교사 뛰어오를까?

- A: 당신들 반에서 누가 제일 빨리 달릴까?
B: 그가 제일 빨리 달릴 겁니다.
A: 누가 제일 빨리 달릴까?
B: 정선교사 제일 빨리 달릴 겁니다.

跑 [pǎo] 달랠다
跳 [tiào] 뛰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927>

浮沈遲數(부침지삭)

뜰 부, 가라앉을 침, 더딜 지, 빠른 삭

부침지삭(浮沈遲數)은 한의학 책상(脈象)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부맥(浮脈, 맥이 피부에 떠있어 금방 느껴짐), 침맥(沈脈, 맥이 피부 밑에 가라앉아 있음), 지맥(遲脈, 맥이 느린 것), 삭맥(數脈, 맥이 빠른 것으로 염증이 있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한의학의 역사는 매우 길다. 이미 2500여년 전에 '황제내경(皇帝內經)'이 편찬되고, 그로부터 약 500년 뒤 한(漢)나라 때 장중경이 '상한론(傷寒論)'을 내었을 정도다. 한의학의 진단법으로는 사진(四診) 즉 망문문절(望聞問切)을 사용한다. 우선 겉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망(望)이고, 환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문(問),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聞), 그리고 맥을 짚어보는 것이 절(切)이다. 따라서 맥진(脈診)은 마지막 단계로 확인을 위한 하나의 방편인 셈이며, 우리나라 한의학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선말의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8~1900)는 '맥법은 중(證)을 진단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 이치는 부침지삭(浮沈遲數)만 보면 족하지, 기기묘묘한 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존 한의학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하였다.(東醫壽世保元, 醫源論)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멘트.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